

● 2009 대한민국 별축제(대전) 개최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꿈돌이 사이언스 존 일원에서 “2009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행사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한민국 공군이 주최하고, 꿈돌이 사이언스 존 발전협의회(국립중앙과학관, 꿈돌이랜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엑스포과학공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컨벤션센터, 대전시민천문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가 주관하였다.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며, 발전협의회 소속의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개최하던 행사들을 엮어서 하나의 과학축제로 만든 것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의 ‘꿈돌이 우주탐험대’, 국립중앙과학관의 ‘사이언스 데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탐구행사’와 함께, 우리 연구원에서는 4월 11일과 12일 야간에 꿈돌이랜드에서 “대한민국 별축제(대전)”를 개최하였다. 또한, 제17회 천체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시상식장 앞에는 당선작을 전시하였다. 11일 밤에 열린 공식 축하행사에서는 대전시와 감필라고 왕국이 우주등불을 맺었으며, 20회 국제우주대회 홍보대사에 송유근 군이 위촉되었다. 이어서 공군 축하비행, 불꽃놀이, 프렌즈 공연 등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별 축제’에서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학교 동아리와 함께, 이동전문차량 스타-카(Star-Car)와 다수의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토성, 시리우스,昀철의 별자리 등을 관측했다. 더불어 우리 연구원의 임흥서 박사가 ‘소행성과 지구충돌’을 주제로 과학강연을 하였으며, 도전 천문퀴즈도 진행하였다. 한편, 우리 연구원과 꿈돌이랜드는 대전 국제우주대회(IAC)와 세계 천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11일(토) 저녁 6시부터 이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꿈돌이랜드의 모든 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꿈돌이랜드는 원래 입장료가 없는 놀이공원이지만 이번처럼 놀이시설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대전 엑스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사진 : Photo gallery 참조)

● 천문연-기상청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지난 4월 7일 우리 연구원과 기상청은 GPS 및 우주기상자료 공유와 관련 기술을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기상청에서 체결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GPS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 변화를 준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번 협약으로 기상청은 국내 GPS 관측망 자료로부터 수증기량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 예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GPS 및 라디오미터의 관측 자료와 관련 기술의 협력을 통해 우주기상 연구, 한반도 지각변동 연구 등을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 2009 식목행사



우리 연구원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지난 4월 3일에 연구원 주변과 대덕전파조정지역에 시비, 식재, 청소 등의 식목행사를 진행하였다. 총무시설안전팀은 세종홀 현관 앞에 화향나무를 심었고, 국제천체물리센터, 정보자산운영팀, 홍보팀, 우주물체감시연구그룹은 본원과 조정지역 나무에 유기질 거름을 주었다. 또한, 전파천문연구부, 우주측지연구부, 우주천문연구부는 본원과 대덕건물 주변 등을 청소하였고, 정책실과 연구성과팀은 연구원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였다.



● 정책토론 대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17일 대전 유성호원에서 박석재 원장을 비롯한 팀장·그룹장 이상의 간부직원 및 노동조합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World Leading KASI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 대회"를 개최하였다. 박석재 원장의 정책제언을 필두로 하여 박필호 선임연구부장의 기관운영 원칙 설명으로 마무리된 이번 정책토론 대회에서는 KASI 중장기전략계획 수립 방안, 3개년 성과 목표 수립 방안, 연구정책업무 Action Plan, 실시간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인재개발 계획,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확보 방안 및 일본 국립천문대(NAOJ)와의 연구경쟁력 분석 등 우리 연구원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과 해결방안들을 쟁점으로 한 정책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박석재 원장은 정책제언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전략적이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박필호 선임연구부장은 기관운영 원칙을 설명하면서 선진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관의 내재적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기관의 리더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 대회는 우리 연구원이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전 부서가 공유하고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금번 정책토론에서 제시된 정책방안들에 대한 실행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족과학축제 참가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된 "2009 가족과학축제"에 참가하였다. 국립천문과학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이

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녹색나들이'라는 주제로 지구와 인류 현안 과제(기후변화, 물, 식량, 에너지, 질병)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 및 미래 사회를 예측, 제시하고 녹색성장 정책은 과학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이번 과학문화 행사를 통해 알려 가족들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동천문대차량인 스타-카(Star-Car)가 참가하였고, 리플렛 및 세계 전문의 해 기념엽서 등의 홍보물을 제공하였다.

● 이동천체관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1일에 대병초등학교에서, 2일에는 냉천초등학교에서 "제12회 이동천체관" 개최하였다. 이어서 4월 29일 무주군 안성중학교에서, 30일 순천시 낙안초등학교에서 "제13회 이동천체관"을 열었다. 이동천체관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전문교육과 천체관측을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 및 일반인들에게 천문학 강연과 이동천문차량 스타카(Star-Car)를 이용한 천체관측을 제공하였다.

● 과학의 날 표창상

지난 4월 21일 제42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에게 포상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1m 초장기선 전파간섭계용 전파망원경 3기와 관측동을 구축하여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시킨 대덕전파천문대의 이창훈 박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홍보팀의 문종기 주임기술원에게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에게 전문우주 과학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점이 인정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포상하였다.